

국내 방문간호 연구동향 분석 연구

변진이¹, 김혜진^{2*}

¹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²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후연구원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Visiting Nursing in South Korea

Jinyee Byun¹, Hyejin Kim^{2*}

¹Lecture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Postdoctoral Scholar, College of Nursi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방문간호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82편을 분석하였다. 방문간호 연구는 1993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서 2018년에는 67편(23.8%)으로 그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문간호 3가지 유형 중 의료기관 가정간호 관련 연구가 154편(53.5%)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연구주제는 주로 방문간호 서비스(40편, 13.8%) 및 방문간호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38편, 13.1%)과 관련된 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269편(95.4%)으로 질적연구 9편(3.2%), 혼합연구 4편(1.4%)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으며, 양적 연구 중에서도 조사연구가 177편(65.7%)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방문간호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방문간호 관련 중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노인,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연구동향,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in visiting nursing through an analysis of 282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between 1993 and 2018.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has consistently increased since 1993 while it slightly decreased in 2014-2018. Of the three types of visiting nursing in Korea, more than 50% of the studies(154, 53.5%) were conducted for hospital based home care services. For the research topics, many studies addressed visiting nursing services(40, 13.8%) and program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visiting nursing(38, 13.1%). Also, there were many quantitative studies(269, 95.4%) compared to qualitative(9, 3.2%) or mixed methods(4, 1.4%) studies. The study findings suggested the needs for further studies that develop programs for patients and strengthen competencies of visiting nurses. Also, more experimental, qualitative, or mixed methods study designs need to be applied.

Key Words : Elderly, Visiting nursing, Visiting nurse, Research trends, Convergence

1. 서론

1.1 서론

우리나라의 방문간호 도입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보건정책과 관련이 있다[1].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2], 이는 만성질환, 빈곤,

자살 및 요양 등과 같은 다양한 노인 관련 문제를 가져왔다[3]. 특히 질병의 유병 기간 증가로 노인의료비 절감과 자기 건강관리능력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4].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및 요양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5]함에 따라 지역사회간호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였다[6]. 이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방문간호가 실시되었다[7].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Kim(hkk5274@psu.edu)

Received October 22,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7,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방문간호는 가정에서 의료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로, 크게 1)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3)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구분된다[8].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환자가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의료비 절감과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9].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간호사 외 전문 인력이 건강 취약 가정을 방문하여 질병 예방,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0].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다[11].

각 방문간호사업은 그 목적, 대상, 법적 근거, 인력 및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고[12.13],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입원 및 시설입소를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15]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의 지속성 및 질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6].

이처럼 방문간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방문간호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특정 분야나 연구주제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시행된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정리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17].

국내 방문간호연구는 1990년대 이후를 시작으로 증가하였다. 방문간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시도[18]가 있었으나, 이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관련 연구만을 분석하여 방문간호 연구 전반에 관한 동향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문간호 연구의 동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방문간호 실무 및 연구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방문간호 연구를 연도별로 고찰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방문간호 논문의 게재 건수, 학술지 학문분야 및 중수를 파악한다.
- 2) 방문간호 논문의 방문간호 유형(의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간호)에 따른 현황을 분석한다.
- 3) 방문간호 논문의 연구주제 분포를 파악한다.
- 4) 방문간호 논문의 연구설계 및 방법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26년간(1993년~2018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방문간호 관련 논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학술논문 총 282편을 분석하였다.

2.2 자료수집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방문간호 관련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www.kci.go.kr)에서 개별 검색어로 '방문간호', '가정간호', '가정전문간호', '재가간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방문간호'로 총 128편, '가정간호'로 총 388편, '가정전문간호'로 27편, '재가간호'로 6편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중복된 논문 46편과 본문 내에 '방문' 또는 '간호' 등의 용어가 포함되었지만, 방문간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논문을 제외한 282편을 분석하였다.

2.3 자료분석

국내 방문간호 논문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논문 게재 건수, 게재논문 학술지 학문 분야 및 중수, 방문간호 유형,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론을 정량 분석하였다. 먼저 방문간호 유형은 의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구분할 수 있다[8]. 또한, 논문의 연구주제 분석을 위해 김소야자와 권보은[18]이 제시한 가정간호 연구주제 범주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주제의 범주는 크게 1) 방문간호 요구도, 2)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3) 방문간호 수가,

- 1) 최근 26년 동안의 논문을 분석함에 따라 연도별 분석은 5년 단위로 논문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단 1993-1998년 중 1994년도는 논문이 발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6년 치를 포함하였다.

4) 방문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 5) 방문간호 사업운영, 6) 방문간호 효과, 7) 방문간호 교육과정, 8)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인식, 9) 방문간호사의 역량 및 스트레스, 10)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수준 및 삶의 질, 그리고 11) 해외 방문간호 및 제도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11개의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는 주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서는 간호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19]에서 제시한 틀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양적연구는 비실험연구와 실험연구로 구분하였으며, 질적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내용분석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구분하였다. 내용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간호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2명의 연구자가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활용하여 주제를 분류하였으며, 상이한 분류결과에 대해서는 논문 본문을 살펴본 후 이견을 조율하였다. 연구자료는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도별 게재논문 건수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총 282편의 방문간호 관련 학술논문 게재 건수를 5년 단위(1993-1998년은 6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3년에 방문간호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 23편(8.1%)이던 연구가 1999년부터 2003년에는 약 2.2배 정도 증가한 52편(18.4%)이 출판되었다. 이어서 2004-2008년 67편(23.8%), 2009-2013년 73편(25.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4-2018년에는 2009-2013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67편(23.8%)이 출판되었다. 연도별 게재논문 건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Number of studies published by year

Year	Number (%)
1993-1998	23 (8.1%)
1999-2003	52 (18.4%)
2004-2008	67 (23.8%)
2009-2013	73 (25.9%)
2014-2018	67 (23.8%)
Total	282

3.2 연도별 게재논문 학술지 학문분야 및 종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학술지 학문 분야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방문간호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 학문 분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82편의 방문간호 논문은 총 15개(간호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물리치료학, 방사선과학, 사회학, 사회과학일반, 정책학, 사회복지학, 과학기술학, 학제간연구, 역사학, 전자/정보통신공학, 공학일반, 통계학)의 학문 분야 학술지에 분포되어 있었다.

1993-1998년에는 2개의 학문 분야(간호학, 방사선과학)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되었으나 1999-2003년과 2004-2008년에는 각각 5개(간호학, 예방의학, 사회학,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의 학문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9-2013년과 2014-2018년에는 각각 10개의 학문 분야로 다양화되어 출판되어, 방문간호에 대한 다학제적 관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 있어 1993-1999년에는 1개 학술지에 방문간호 연구가 출판되었으나 학술지의 종수는 차츰 증가하여 1999-2003년 4종, 2004-2008년 8종, 2009-2013년 및 2014-2018년 각각 10종이 되었다. 연도별 학술지 주제분야 및 종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Number of journals by disciplinary areas

Disciplinary Area/Year	1993-1998	1999-2003	2004-2008	2009-2013	2014-2018
Nursing	1	4	8	10	10
Preventive Medicine		2	2	1	4
Rehabilitation Medicine					1
Physical Therapy		1			
Radiology	1			1	
Sociology			1	1	
Social Sciences			1	1	1
Policy Studies		1			1
Social Welfare		1	2	4	2
Science & Technology Studies					1
Interdisciplinary Research				2	2
Historical Studies					1
Electronic/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	
Engineering Science				1	
Statistics				1	2
Total	2	9	14	23	25

3.3 연도별 게재논문 방문간호 유형

연도별 게재논문 방문간호 유형은 Table 3과 같다. 논문에서 다루어진 방문간호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의료기관 가정간호 154건(53.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102건(35.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논문 32건(11.1%)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의료기관 가정간호 연구는 1993-1998년에는 21편으로 2004-2008에 43편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2013년 28편, 2014-2018년 22편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구는 1993-1998년 2편으로 시작되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2018년에는 35편이 출판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연구는 2004-2008년을 시작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유형별 게재논문의 변화추이는 Fig. 1과 같다.

Table 3. Types of visiting nursing in studies

Year/Types	Hospital based home care service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s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s within Long-term care insurance
1993-1998	21	2	
1999-2003	39(2)	11(2)	
2004-2008	40(2)	20(2)	5(1)
2009-2013	28(1)	30(1)	14(1)
2014-2018	21	35	11
Total	154	102	32

Note. Numeric values in parenthesis refer to overlaps across the three types of visiting nursing. The total of five papers addressed more than two types of visiting nur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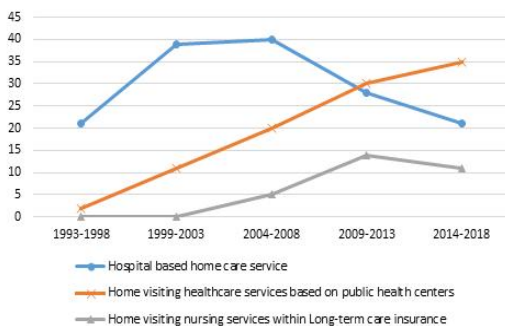


Fig. 1. Types of visiting nursing in studies

3.4 연도별 게재논문의 주요 개념

논문에서 다루어진 주요 개념을 분석한 결과, 방문

간호 서비스 40편(13.8%), 방문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 38편(13.1%),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 수준 및 삶의 질 37편(12.8%), 방문간호 요구도 30편(10.4%), 방문간호 효과 28편(9.7%), 방문간호 수가 22편(7.6%), 방문간호사의 역량 및 스트레스 21편(7.3%), 방문간호 인식 18편(6.2%), 방문간호 사업운영 17편(5.6%), 방문간호 교육과정 15편(5.2%), 해외 방문간호 및 제도 분석 19편(6.6%), 기타 4편(1.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 결과, 방문간호 연구 초기인 1993-1998년에는 총 23편의 논문 중 방문간호 서비스와 관련된 논문이 3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999-2003년에는 방문간호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15.3%), 방문간호 사업운영(11.5%), 방문간호 인식에 대한 연구(13.4%)가 주로 수행되었다. 2004-2008년에는 방문간호 요구도(13.4%)와 방문간호 수가(11.9%),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수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17.9%)가 많았으며, 방문간호사의 역량이나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10.4%)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9-2013년에는 방문간호 요구도(15.0%), 방문간호 서비스(12.3%), 방문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17.8%),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 수준 및 삶의 질(12.3%)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2014-2018년에는 방문간호서비스(19.4%)와 방문간호 효과(13.9%)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게재논문의 연구주제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earch topics of studies

Research topic/Year	1993 - 1998	1999 - 2003	2004 - 2008	2009 - 2013	2014 - 2018	Total
Need of visiting nursing	1	5	9	11	4	30
Visiting nursing service	8	4	5	9	13	39
Cost of visiting nursing	1	4	8	8	1	22
Program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visiting nursing	4	8	7	13	6	38
Business operation of visiting nursing	3	6	3	3	1	16
Effect of visiting nursing	1	3	4	7	13	28
Curriculum of visiting nursing	0	4	3	2	6	15
Perception of visiting nursing	2	7	4	4	1	18

Competency and stress of visiting nurse	0	2	7	5	7	21
Health condition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 and protector	1	4	12	9	11	37
System for visiting nursing in other countries	2	3	5	2	2	14
Others	0	2	0	0	2	4

3.5 게재논문 연구방법

방문간호 관련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양적연구(269편, 95.4%)였으며 질적연구는 9편(3.2%), 혼합연구는 4편(1.4%)으로 양적연구에 비해 낮은 비율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중에서 비실험연구는 246편(91.4%), 실험연구(유사, 순수, 원시실험)는 23편(8.5%)으로 나타났고, 비실험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조사연구로서 전체 비실험 연구 중 177편(71.9%)을 차지하였다. 실험연구에서는 유사실험연구가 13편(56.5%)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원시실험연구는 2편(34.7%), 순수실험연구는 2편(8.6%)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의 경우, 총 9편의 논문 가운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가 4편(44.4%), 그 외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내용 분석, 내러티브, 사례연구가 각각 1편씩(각11.1%) 수행되었다.

연도별 분석 결과, 1993-1998년에는 조사연구(14편, 60.8%)와 방법론적 연구(4편, 17.3%), 문헌연구(4편, 17.3%)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1999-2003년에는 조사연구(37편, 71.1%)와 방법론적 연구(7편, 13.4%)가 증가하였으며, 유사실험연구(3편, 5.7%)와 현상학적 연구(1편, 1.9%)도 실시되었다. 2004-2008년에도 조사연구는 65.6%로 전년도인 60.8%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그 외 2차분석연구(4편, 5.9%), 문헌연구(8편, 11.9%), 유사실험연구(1편, 1.4%)도 수행되었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근거이론 연구도 수행되었다. 2009-2013년 및 2014-2018년에도 조사연구는 여전히 많았으며 원시실험 연구나 유사실험 연구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절대적인 논문의 수는 적으나 사례연구, 내용분석, 내러티브 등의 다양한 질적연구 기법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게재논문의 연구방법 및 설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tudy designs of papers by year

Research method/Year		1993-1998	1999-2003	2004-2008	2009-2013	2014-2018
Quantitative study	Survey	14	37	44	41	41
	Methodological research	4	7	6	7	2
	Second analysis	1		4	9	7
	Literature review	4	4	8	2	4
	Quasi-experimental design		3	1	3	6
	True experimental design				1	1
	Pre-experimental design			2	4	2
	total	23	51	65	67	63
Qualitative study	Case study research					1
	Focus group interview			1	1	2
	Grounded theory			1		
	Content analysis				1	
	Narrative research				1	
	Phenomenological research		1			
	total		1	2	3	3
Triangulation study					3	1
Total		23		67	73	67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방문간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6년간(199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방문간호 논문 282편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3-1998년에 23편이던 논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2013년에는 73편이 출판되었으며, 이후 2014-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방문간호 연구의 양적 증가 추세는 만성질환 관리 및 요양에 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간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5], 이 같은 맥락에서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간호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주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연구 초기에는 간호학과 방사선 과학의 두 분야에서만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10개의 학술지 주제 분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방문간호 관련 연구문제 접근에 있어 다학제적 관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공학 및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건강관리 시스템이나 간호과정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20, 21]가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이용실태[22]나 이용결정요인[23]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는 방문간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문간호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종수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간호학 분야 학술지 종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간호학 전반으로 확대되고 다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문간호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연구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35.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11.1%의 순으로 수행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는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로 시작하여 같은 해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는데[24], 이후 1993년에 우리나라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5년 12월, 구 보건소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방문간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작되었다[16]. 이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연구는 199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경우,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1]. 이에 2004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가능 수준을 분석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각각의 방문간호사업이 시행된 시점이 각기 달라 논문 편수만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의료기관 가정간호나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보다 약 20년 정도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방문간호 연구주제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분석한 연구(40편, 13.8%)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간호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38편, 13.1%)과 환자와 보호자의 기능 수준 및 삶의 질(37편, 12.8%)을 살펴본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방문간호 사업운영, 방문간호 교육과정과 해외 방문간호 제도 및 분석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가장 많이 수행된 방문간호 서비스 분야 연구의 경우, 주요 내용이 방문간호사의 직무나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방문간호 연구 초기에는 서비스 현황 파악[26, 27], 업무수행 지침 개발을 위한 서비스 활동내용 분석[28] 등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분류체계를 이용한 방문간호서비스 분석[3], 서비스 수행 빈도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9]. 그리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각기 다른 방문간호(의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에서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역할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한계가 있어 이들의 직무를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까지 수행된 바 있다[30].

방문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5.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수행되었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간호 이용자의 질병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처방안으로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요구 분석 및 교육과정 연구[31]가 수행되었다. 방문간호사의 역량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방문간호 연구 초기에는 환자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방문간호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32]. 특히 방문간호사는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 수행이 요구되므로[5] 방문간호사의 역량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간호 연구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연구 초기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방문간호 논문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 총 282편 중 대다수인 95.4%가 양적연구였으며, 질적연구 3.2%, 혼합연구 1.4%로 질적연구와 혼합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적 연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적연구의 비실험연구 내에서 조사연구가 65.7%로 대다수였으며, 대부분이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방문간호가 실시되면서 조사연구를 통해 방문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한 중재연구나 혼합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적연구의 실험연구에서는 유사실험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간호연구 실험연구의 대부분이 유사실험으로 보고된 최명애[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 분야에서 대부분의 실험연구가 인간 대상이므로 실험실 연구에 비해 무작위 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상자 모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34] 주로 유사실험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질적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며, 연구 대상은 주로 방문간호사나 방문간호 관리자, 방문간호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은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험 탐색하기도 하였으나[35], 주로 방문간호 관리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현황[36], 활성화 방안[37]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간호 이용자를 대상으로 삶의 경험[38]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게재되었다.

현재까지 수행된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에 비해 편수가 매우 적고, 주제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질적연구는 계량화된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 접근으로 모색된 연구방법으로 인간의 현상 이면의 심층적인 구조와 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39]. 또한 간호학은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40]. 우리나라보다 방문간호가 먼저 시작된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방문간호사의 간호 경험, 어려움, 협력적 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근거이론, 내용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41-43]. 따라서 국내에서도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이용자, 보호자 등 연구 대상과 주제를 확대하여 다각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적, 질적, 혼합 등의 다양한 연구설계를 적용한 균형 있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18년까지 26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방문간호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 간호학을 비롯한 타 학문분야에서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방문간호의 3가지 유형 즉, 의료기관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간호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영역 모두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관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유형의 방문간호 연구가 시작되고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연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방문간호 교육과정이나 해외 방문간호 및 제도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많이 수행된 주제 분야는 그만큼 시의성이나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된 분야는 추후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방문간호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 분석 결과, 양적 연구가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에 비해 많이 수행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도 비실험연구인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질적연구나 혼합연구도 일부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상호보완적임을 감안할 때, 추후 방문간호 영역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문간호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문간호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후속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다. 이상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순수 실험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중재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방문간호사와 이용자 외에도 보호자에게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양적연구에 외에 질적연구, 혼합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문간호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H. S. Ryu. (2007). Home health care in Korea-home health care nursing, visiting health care nursing, visiting health car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4(2), 98-105.
- [2] Statistics Korea. (2018). *Korean social trends*. Daejeon: SK.
- [3] S. A. Park & J. Y. Lim. (2017). Performance and requirements of visiting nursing care in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OMAHA syste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4(2), 181-188. DOI : 10.22705/jkashcn.2017.24.2.181
- [4] W. J. Lee. (2018). Recent research trend analysis of elderly welfare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Korean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10(2), 31-39.
- [5] H. C. Baek & J. H. Moon. (2016). The development of home visiting nurses' professional competenc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3(2), 233-242. DOI : 10.22705/jkashcn.2016.23.2.233
- [6] A. Tourangeau et al. (2014). Factors influencing home care nurse intention to remain employed.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2(8), 1015-1026. DOI : 10.1111/jonm.12104
- [7] E. O. Park. (2019).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tasks of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44(1), 28-38. DOI : 10.5393/JAMCH.2019.44.1.028
- [8] M. S. Sung, H. J. Jang, C. G. Kim, K. H. Kang, K. A. Nam & J. D. Park. (2010). Comparative study of nursing care service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four nation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211-225. DOI : 10.5932/JKPHN.2010.24.2.211
- [9] M. S. Hwang, S. J. Lee, Lim, N. Y & M. K. Lee. (2011). Job descriptions of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in Korea by DACUM techniqu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8(1), 48-57.
- [10] H. J. Bae & J. H. Kim. (2015). Estimating need for home visiting nurse from public health center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23-32. DOI : 10.16952/pns.2015.12.1.23
- [1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Long 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17*. Wonju: NHIS.
- [12] W. S. Jung & E. S. Yim.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older adults with stroke: a comparison of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7(4), 388-398. DOI : 10.12799/jkachn.2016.27.4.388
- [13] K. Lee & E. Cho. (2017).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rehabilitation needs for older adults with a stroke: a comparison of home care and nursing home care.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14(2), 103-111. DOI : 10.1111/jjns.12139
- [14] G. S. Kim, I. S. Ko, T. Lee & E. J. Kim. (2014). Effects of community-based case management by visiting nuses for low-income patients with hypertension in South Korea.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s*, 11(1), 35-43. DOI : 10.1111/j.1742-7924.2012.00229.x
- [15] Y. Oyama, N. Tamiya, M. Kashiwagi, M. Sato, K. Ohwaki & E. Yano. (2013). Factors that allow elderly individuals to stay at home with their families using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13(2), 764-773. DOI : 10.1111/ggi.12002
- [16] G. Lee, S. J. Yang & E. WOO. (2018). Past, present, and future of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1), 5-18. DOI : 10.5932/JKPHN.2018.32.1.5
- [17] E. O. Lee et al. (1992).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 271-296.

- [18] S. Kim & B. E. Kwon. (2000). 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s for home care nursing research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7(1), 39-57.
- [19] Y. J. Kim et al. (2019). Research trend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0 to 2017: text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5(1), 80-90.
DOI : 10.22650/JKCN.2019.25.1.80
- [20] D. H. Shim. (2009). Design of remote health monitoring system based on USN. *Journal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nvergence*, 7(4), 183-187.
- [21] H. Cho & I. S. Kang. (2009). Development of nursing process information system for the home health c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5), 1126-1132.
DOI : 10.5762/KAIS.2009.10.5.1126
- [22] Y. Byun. (2010). An study on the use of long-term home care service in agricultural district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6(3), 383-308.
- [23] C. J. Park. (2010). Determinants of long term care service use of family caregiver.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3, 69-92.
- [24] C. R. Song, M. K. Lee, M. S. Hwang & Y. M. Yoon. (2014). The current state of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in Korea: analysis of data on insurance claims for home care from 2007 to 2012.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1(2), 127-138.
- [25] H. J. Kim et al. (1993). A study of development on the payment system of home health care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 5-56.
- [26] M. J. Jo & H. J. Hyun. (1995). A study on home health care service and the level of client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 52-59.
- [27] H. S. Ryu, E. S. Park, Y. J. Park, K. S. Han & J. Y. Lim. (2003). A workload analysis of a visiting nursing service based on a health center in Seou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7), 1018-1027.
- [28] S. L. Kim & K. Y. Lee. (1999). Visiting nursing activities provided by public health nurses in a health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6, 59-65.
- [29] J. H. Kim & M. S. Song. (2015). The health service performance frequency and educational needs among the visiting nurses of public health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2(1), 22-37.
- [30] H. K. Nam & K. S. Cho. (2015). Job analysis of the nurses who work in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services using DACUM technique.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2(3), 205-218.
DOI : 10.5953/JMJH.2015.22.3.205
- [31] H. Y. Kim, H. S. Chung, B. J. Jeon & M. H. Shin. (2010). Educational needs analysis for development of home healthcare nurse specialist education progra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7(2), 135-143.
- [32] J. Y. Lee, K. J. Jeon & S. H. Cho. (2017). Competencies of nurses in a 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8(4) 397-409.
DOI : 10.12799/jkachn.2017.28.4.397
- [33] M. A. Choe et al. (2014).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5), 486-494.
DOI : 10.4040/jkan.2014.44.5.484
- [34] S. G. Yeoum, S. A. Park & J. Y. Lee. (2019). Trends in multicultural nursing research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9(1), 1-8.
- [35] S. Y. Kang. (2008). Customized nursing care types and process: focusing on home care servic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4(1), 13-25.
- [36] S. J. Koh et al. (2014). Home hospice palliative care service in Korea: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1), 37-52.
DOI : 10.7465/jkdi.2014.25.1.37
- [37] D. H. Byeon. (2015). Plan for invigoration of visiting nursing center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rough SWOT analysi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2), 203-218.
DOI : 10.5932/JKPHN.2015.29.2.203
- [38] I. J. Lee & C. S. Lee. (2011). A narrative inquiry of experience of the elderly's living with chronic

disease in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8(1), 20-31.

- [39] M. H. Park & S. J. Kang. (2012). Analysis of the trend in qualitative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in Korean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and Health Disabilities*, 55(2), 205-226.
- [40] N. K. Denzin & Y. S. Lincoln.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5.
- [41] A. Funakoshi, Y. Miyamoto & M. Kayama. (2006). Visiting nurses service station managers: Recognition of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taff nurses who provide home car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Japan Academy Nursing Science*, 26(3), 67-76.
- [42] M. E. Muntinga, K. M. van Leeuwen, A. P. D. Jansen, G. Nijpels, F. G. Schellevis & T. A. Abma. (2016). The important of trust in successful home visit programs for older people. *Global Quantitative Nursing Research*, 3, 1-11. DOI : 10.1177/23333936166681935
- [43] Y. Nakamura. (2013). Expert visiting nurse station managers expectations of visiting nurses performance: based on manager involvement in personnel utiliz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Jap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33(4), 33-42. DOI : 10.5630/jans.33.4_33

변진이(Jinyee Byun)

[정회원]



- 2010년 2월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강사)
- 관심분야 : 만성질환, 노인간호, 삶의 질
- E-Mail : jinyee1213@naver.com

김혜진(Hyeji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노인전문간호과정)
- 2019년 8월 :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Nursing (간호학박사)

- 2019년 10월 ~ 현재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ostdoctoral Scholar)
- 관심분야 : Late-life cognitive impairment, illness perceptions, self-management, decision-making, health disparity
- E-Mail : hkk5274@psu.edu